



# 가정교회 예배안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 오이코스 전도 대상자

“...기도하되 하나님이 전도할 문을 우리에게 열어 주사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하게 하시기를 구하라...” [골로새서 4장 3절]

NO	대상자명	관 계	구체적 전도방법	영적수준	비 고
1					
2					
3					
4					

수준1) 결신할 수 있음    수준2) 복음에 대하여 열려 있음    수준3) 전도자에 대하여 열려 있음  
수준4) 기독교에 대하여 알지만 부정적임    수준5) 기독교에 대하여 전혀 모름

## 가정교회를 위한 기도

“...너희 중에 두 사람이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너희를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마태복음 18장19절]

NO	성 명	기도제목
1		
2		
3		
4		
5		
6		

## 교회를 위한 기도

- 한 기흥 목사님 사역과 건강, 가정을 위하여
- 선교사님들의 GMI 사역과 건강, 가정을 위하여
- 교회와 사역/행사를 위하여
  - 4차 일천번제 특별 새벽기도회(1/22/2024~10/17/2026)
  - 연합 Grace Encounter(3/5~26, 매주 목요일 7~10pm)
  - 미주노회(3/24~27)
  - Grace Freedom 49기(남녀 연합, 3/27~29)
  - 종려주일 성찬식(3/29)    - 고난주간 특별 새벽부흥회(3/30~4/4)
  - 침례식(4/4)                - 부활주일(4/5)

가정교회 보고서



# 가정교회 예배안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 가정교회 예배안 2026. 3. 22

### 3월 넷째 주: 연약함을 강하게 하는 믿음 (히브리서 11:32-34)

#### ■ Welcome

여러분이 생각하는 ‘믿음이 좋은 사람’의 이미지는 어떤 모습인가요? 또한 지난 주 의 Grace Time을 통해 은혜 받은 것 중 하나를 나누어 봅시다.

#### ■ 본문: 히브리서 11:32-34

32 내가 무슨 말을 더 하리요 기드온, 바락, 삼손, 입다와 다윗과 사무엘과 및 선지자들의 일을 말하려면 내게 시간이 부족하리보다 33 저희가 믿음으로 나라들을 이기 기도 하며 의를 행하기도 하며 약속을 받기도 하며 사자들의 입을 막기도 하며 34 불의 세력을 멸하기도 하며 칼날을 피하기도 하며 연약한 가운데서 강하게 되기도 하며 전쟁에 용맹되어 이방 사람들의 진을 물리치기도 하며

#### ■ 서론

히브리서 11장은 흔히 믿음의 장이라고 불립니다. 이 장에는 기드온, 바락, 삼손, 입다, 다윗, 사무엘과 같은 믿음의 사람들이 등장합니다. 우리는 이런 사람들을 보면서 특별하게 믿음이 강한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성경을 자세히 보면 그들은 완벽한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다윗은 정욕을 제어하지 못해 큰 죄를 범했습니다. 삼손은 연약함이 너무 많아서 말하기도 어려울 정도입니다. 바락은 두려움이 있었고 현실적인 계산을 하던 사람이었습니다. 사무엘도 자녀 문제라는 약점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처럼 성경에 등장하는 믿음의 사람들도 모두 연약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은 왜 이들을 믿음의 사람이라고 부를까요? 그 이유는 그들이 완벽했기 때문이 아니라, 믿음으로 살아갔기 때문입니다. 믿음은 우리의 연약함을 강하게 합니다. 그들은 처음에 작은 믿음으로 한 걸음, 또 한 걸음을 내디뎠습니다. 그 작은 걸음들이 모여 그들의 믿음을 강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믿음에서 중요한 것은 큰 사건이 아니라 작은 순종입니다.

믿음은 완벽한 사람에게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연약한 사람에게도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믿음은 우리의 연약함을 강하게 합니다. 믿음은 우리의 연약함을 강하게 하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믿음의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받으시는 한 가지가 있었기 때문에 강한 믿음이 사람이 될 수 있었습니다.



## ■ 관찰 질문: 하나님이 믿음으로 받으시는 한 가지란 무엇인가?

### 해답 1. 하나님은 우리의 수많은 연약함보다 한 가지를 보신다.

부모들은 자기 아이의 문제를 잘 보지 못합니다. 아이에게 수많은 문제점이 있어도 그것은 보지 않고 좋은 점만 보려고 합니다. 놀랍게도 하나님도 우리를 그렇게 보십니다. 만약 하나님이 공의의 기준으로 우리를 판단하셨다면 우리는 이미 끝났을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사랑의 눈으로 우리를 보십니다. 우리에게 수많은 연약함이 있어도 하나님은 그것만 보지 않으십니다.

“그래도 저 아이는 진심이 있다.”, “그래도 저 아이는 나를 향한 마음이 있다.” 그 한 가지를 보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의 신비는 이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것 같지만 사실은 하나님이 우리를 믿어 주시는 것입니다.

### ❁ 적용 질문 1

1) 내가 요즘 너무 엄격하게 판단하고 있는 나 자신이나 주변 사람이 있나요? 왜 그렇게 엄격한 마음이 드는지, 또 그 시선을 거두기 위해 내 안에서 변화되어야 할 생각이나 태도는 무엇일까요?

2) 누군가 나의 실수나 부족함 대신, 나의 ‘진심’ 하나를 믿고 응원해 주었을 때 어떤 기분이 들었나요?

### 해답 2. 그럼,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한 가지는 무엇인가?

우리는 하나님을 믿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믿음의 더 깊은 신비는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믿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수많은 연약함 속에서도 단 하나의 진심을 보시고 그것을 믿음으로 받아 주십니다.

우리에게 그 한 가지는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보시고 “그래도 이것만큼은 진짜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있습니까? 그것이 바로 여러분의 믿음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수많은 연약함과 부족함에 집중하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인정하시는 그 한 가지에 집중해야 합니다. 조금 부족하고 어설피어도 하나님은 그것을 당신을 향한 사랑으로 받아 주십니다. 우리는 잘못도 많고 연약함도 많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 모든 것 속에서도 하나님의 마음을 향한 한 가지를 찾으십니다.

#### \* 코로나 시기의 고성준 목사님 교회의 예

코로나 시기에 교회에서 예배를 드릴 수 없었던 때가 있었습니다. 그때 저는 놀라운 장면을 보았습니다. 교회 문이 닫혀 있는데 성도들이 교회에 와서 교회 벽을 붙잡고 울며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 예배 드리게 해 주세요.” 그 모습을 보며 저는 이것이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우리의 한 가지 믿음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우리는 부족한 것이 많지만 하나님은 그 진심 하나를 믿음으로 받아 주십니다.



### ❁ 적용 질문 2

1) 요즘 내가 스스로 자꾸 ‘연약하다, 부족하다’고 느껴서 하나님 앞에 서기 주저하게 만드는 부분은 무엇인가요?

2) 남들이 보기에는 어설피고 작아 보일지 몰라도, 하나님께서 ‘이것만큼은 진짜다’라고 인정해 주실 것 같은 나의 진심 어린 태도나 마음은 무엇인가요?

### 해답 3. 믿음의 사람들에게도 하나님이 받으신 한 가지가 있었다.

성경에 등장하는 믿음의 사람들에게도 연약함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에게는 하나님이 받으신 한 가지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한 가지를 믿음으로 받으셨습니다.

바라에게는 끝까지 자리를 지키는 충성이 있었습니다. 그는 드보라의 뒤에 가려진 사람이었고 평생 이인자였지만 마지막까지 자신의 자리를 떠나지 않았습니다. 다윗에게는 하나님을 향한 예배의 마음이 있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것을 무엇보다 사랑했습니다. 사무엘에게는 사명에 대한 헌신이 있었습니다. 좋을 때나 어려울 때나 사명을 붙들고 살았습니다. 삼손에게는 원수를 향해 물러서지 않는 용기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완벽한 사람을 찾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완벽할 수 없다는 것을 하나님은 이미 알고 계십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수많은 연약함 속에서도 하나님을 향한 그 한 가지를 찾으십니다.

#### \* 고성준 목사님의 유학생 시절의 예

목사님의 유학생 시절 사역을 완전히 실패했던 때가 있었다고 합니다. 기도하며 계속 “잘못했습니다”라고 고백하고 있을 때 하나님이 물으셨습니다. “그래도 네가 나를 사랑하는 것은 진짜가 아니냐?” 그 질문 앞에서 목사님은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네 하나님, 저는 실수도 많고 실패도 했지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진짜입니다.” 그 고백이 목사님의 인생의 방향을 바꾸었다고 합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이 받으시는 그 한 가지가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여러분의 믿음으로 받아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 믿음이 결국 여러분을 믿음의 사람으로 만들어 갈 것입니다.

### ❁ 적용 질문 3

1) 바라(충성), 다윗(예배), 사무엘(헌신), 삼손(용기) 중 지금 나의 상황에서 가장 닮고 싶거나 공감이 가는 ‘한 가지’는 무엇인가요?

2) 연약함에 집중하지 않고, 완벽함을 추구하지 않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한 가지’를 붙들기 위해 이번 한 주간 내가 실천할 구체적인 ‘작은 걸음(순종)’은 무엇인가요? (작은 걸음이 모여 믿음을 강하게 합니다.)